

내홍 끝 화합... 광주 불교계 첫 송년법회

광주불교聯 2014송년의 밤 행사

광주불교계 최초로 한 해를 회상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모았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와 빛고을나눔나무는 공동으로 구립 19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2014 광주불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의 밤 행사에는 광주지역 사찰 주지스님과 신도회장을 비롯한 임원, 50여개 불교신행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광주지역 불교언론인 모임, 불자 기업인, 지역 국회의원(박주선 의원, 박혜자 의원, 임내현 의원) 등을 비롯한 불교지도자 250여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2014년을 회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공연 · 우수불자 시상식 등
빛고을나눔나무 기부약정식도
2015년 봉축일정 발표 '눈길'

지난 2년간 큰 혼란을 겪었던 광주불교가 이번 송년의 밤 행사를 통해 화합과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큰 의미를 가졌다.

송년의 밤 행사는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각계 대표들의 축사, 광주불교연합회의 올 한해 활동상을 회고하는 영상물 상영에 이어 시상식과 내

년 빛고을 관등회 행사 일정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고, 올해 우수불자에 대한 시상과 지난 11월 창립한 빛고을나눔나무 기부약정식과 만찬이 이어졌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날 올해의 '빛고을 불자대상'에 '차이나공'을 선정하고 상패와 금메달을 수여했다. 빛고을 불자대상은 올해 처음 제정된 상으로 광주지역에서 가

장 열심히 포교활동을 진행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지난 11월까지 각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며, 매년 1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을 받은 차이나공은 올해 광주전남 지역 불교행사와 군법당, 불교계 무료 식당 등에서 가족들이 참여해 자장면 2만 그릇을 무상으로 보시하며 봉사활동을 해왔다.



광주불교연합회와 빛고을나눔나무는 공동으로 구립 19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2014 광주불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혜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공모사업에 가장 우수한 행사를 펼친 동원사(주지 지장)에 우수상이 전달됐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날 2015년 봉축일정을 발표했다. 기획단장을 맡은 시각스님은 "내년 행사의 주제는 '견우와 직녀

의 생명이야기'이며, 5월 1일 문화정당앞에 20m 크기의 봉축탑을 점등한다"라고 말하며, "올해에는 전통등 전시회, 관등법요식, 대동한마당, 시민문화한마당, 봉축한마당 등 5개 마당으로 구성해 불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혜 밝혀 보살도를 실천하길"

통도사, 구립 22일 화엄산림 첫 법회 봉행

통도사(주지 원산)가 화엄 세계의 첫날을 맞았다. 통도사는 구립 22일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사부대중 3000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설법전을 재웠다.

입재 법문에서 방장 원명 스님은 "화엄의 세계를 여는 첫날"이라며 "각자의 지혜를 밝혀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보현보살의 지혜를 얻어 여러분들의 원력이 성취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원명 스님은 "법회에 참석해 법을 알면 마음이 달라지고 지혜롭게 된다"며 더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19년 동안 화엄산림법회에 참석한다는 정귀순(52·부산 덕천동)씨는 "19년 전 너무나 어려웠던 시간들을 극복하고 싶어서 법회를 참석했는데 법회를 통해 많은 지혜를 얻은 거 같다"며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자신이 변하고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 선택하며 삶이 부드러워져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 인가 같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또한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를 위해 통도



통도사 화엄산림법회에서 방장 원명 스님의 입재 법문을 하고 있다.

사 불교청년회, 염불공덕회, 포교사회 등 통도사 각 신행단체들도 참여, 질서 유지 및 안내 등으로 봉사해 순조롭게 법회가 진행됐다는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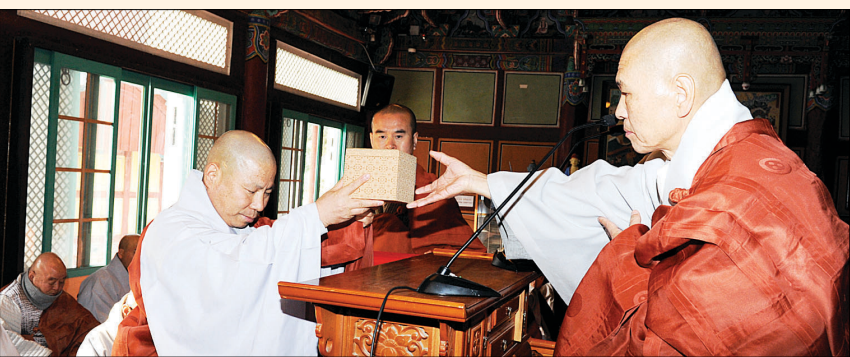
이날 봉사에 참여한 통도사 청년회 회장 김주승씨는 "봉사를 통해 감사함의 마음을 배우게 됐다"며 "화엄산림법회를 돕는다는 거 자체가 감사하다"고 말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2015년 1월 19일 회향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중 화합 위해 원용산림 만들어 가겠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에 원일 스님 취임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사진 오른쪽)으로부터 백양사 직인을 전수받고 있는 원일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신임 주지에 원일 스님이 취임했다. 백양사는 구립 21일 대웅전에서 백양사 문도스님과 이계호 국회의원, 박공식 신부,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신도 등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주지 취임을 봉행했다.

행사는 명중이 이어 불교의례, 고불문, 내빈소개, 수행이력, 취임사, 축사, 정법가, 직인전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방장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전임 주지스님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백양사를 안정시켰다. 새로운 주지스님과 함께 백양사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일 스님은 취임 후 인터뷰를 통해 "방장스님을 비롯해 어른스님을 잘 모시고, 대중들이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하겠다. 더불어 대중의 화합을 통해 원용산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안사업에 대해 △백양사의 새로운 문화공간인 수석박물관 활성화와 △500나한전을 복원 △철야정진 법회를 활성화 △종립 정광학원 정상화 등을 밝혔다.

원일 스님은 1978 백양사 벽상 스님을 은사로 입산, 1980년 수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4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1985년 해인사 강림과 1994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부터 해인사, 봉암사 등 선원에서 수행했다. 15대 중앙종회의원과 백양사 재무, 호법, 기획, 부주지를 역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정중학교, 학부모 위한 송년법회

12월 23일 학부모·교사 100여 명 참석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정진원)반야원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송년법회가 개최됐다. 12월 23일 금정중학교 반야원에서 열린 법회에는 현익재 前교장, 정진원 교장 및 금정중학교 금정반야불자회 학부모 및 학생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로 예불, 학부모들이 직접 올리는 육법 공양 및 경주 중흥사 불이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졌다.

금정반야불자회 회원이자 반야원 총무 서운숙(60)씨는 "신행 활동으로 인해 아이들의 인성이 자리 잡고 편안하게 불교를 접하는 아들을 볼 때 이 학교를 보내길



정말 잘했다"며 "아이를 보면서 학부모 불자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정중학교 학부모 불자회 금정반야불자회는 97년에 창립,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정기 법회 및 신행 수행을 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완주 송광사 청년회, 자비의 연탄 배달

송광사 청년회가 한겨울 추위를 연탄 한 장에 의지해 보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연탄을 전달했다.

완주 송광사 청년회는 구립 23일 소양면 관내 어려운 이웃 10가구에 자비의 연탄 2,000장을 전달했다.

이날 자비의 연탄 배달에는 송광사 황전 스님, 도무 스님, 정형석 송광사 청년회장, 홍광문 전북불교발전협의회장 등 송광사 불자 20여명이 동참했다. 송광사 청년회 지도법사 도무 스님은 "청년회원들



이 연탄배달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동참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도 신흥사 '몰래 산타' 로 소외이웃 돌봐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행사 추진... 200여 명 지원

완도 신흥사(주지·법일)가 '2014 완도 사랑의 몰래산타' 활동에 적극 동참해 완도지역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온정을 전달했다.

"차별없는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완도 사랑의 몰래산타"가 올해 두거 어른신 50여명과 조순가정·다문화가정, 편모·편모가정 아이들 150여명을 지원했다.

완도지역 종교·시민사회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본부는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선물과 사랑을 전달했다.

신도와 부설단체 회원을 이끌고 참가한 법공 스님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

에 교회, 절이라고 따로 경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 내년엔 불교적인 색채를 융합시켜 보겠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몰래산타' 행사를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임을 피력했다.

신흥사는 '완도 사랑의 몰래산타' 출범 초기부터 6년째인 올해까지 법일 스님이 공동대표로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신도회원 20여명과 함께 부설장보고 아카데미가 적극 결합해 법공 총무스님 이하 운영위원과 가족들이 10여명이 '사랑의 몰래산타' 전체 행사에 빠짐없이 동참해 차별과 소외를 넘어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이어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도 신흥사가 '사랑의 몰래 산타' 활동에 동참해 완도 지역의 소외 이웃을 도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나누고자
[전통문화사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아카이브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사진을 자료화하는데서 시작합니다.
사진을 기증해 주실 단체 혹은 작가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제 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공모전 수상작